

尋父談의 淵源과 文學的 形象化

정하영*

<차 례>

1. 尋父談의 개념과 범주
2. 尋父談의 神話的 淵源과 生成 背景
 - 1) 아버지의 存在와 役割
 - 2) 아버지의 失蹤과 探索
3. 尋父談의 설화적 수용과 전개
 - 1) 琉璃說話의 ‘아버지 찾아 가기’
 - 2) 漢文短篇의 ‘아버지 身元 確認’
4. 尋父談의 소설적 수용과 변이
 - 1) 韓文소설의 수용과 변용
 - 2) 國文소설의 수용과 變容
5. 尋父談의 文學적 수용과 그 意義

<국문초록>

尋父談은 離散이나 失蹤으로 헤어진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이다. 家父長制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家長으로서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의 不在는 자녀의 생존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일은 자녀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부담은 흥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을 고루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詩, 說話, 小說의 소재로 취택되었다. 주몽신화에서 시작되는 심부담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설화와 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최척전>처럼 심부담을 중요 소재로 한 작품은 물론이고, <유충렬전>, <홍길동전> 같은 작품도 심부담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부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이들 작품의 본질과 성격은 새롭게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깊이있게 이해될 수 있다. 한국서사문학의 흐름 속에 광범위하게 수용된 심부담은 하나의 主題史的 脈絡을 이루고 있으며,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문학과의 비교 연구의 소재가 될 것이다.

주제어 尋父談, 家父長制, 母系社會, 가족 이산, 실종, 父子離別-再會, 주몽신화, 東明王篇, 主題史的 脈絡

1. 尋父談의 개념과 범주

한 인간의 삶에서 父母의 존재와 역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부모의 신분과 경력은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진다. 인간이 가정을 가지고 정착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자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맺어져 왔다. 부모와 자녀는 가정을 이루는 필수 단위이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결손으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오랜 기간 家父長制를 유지해 온 인류 역사에서 아버지는 父母라는 역할 이외에도 家長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부모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어머니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문의 전통을 아버지의 계통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姓도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다.

家庭은 小說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서사의 배경이고, 가족관계는 가장 관심있게 다루어지는 소설의 素材이다. 소설에서는 가족의 離散과 再會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인류가 流浪生活을 할 때는 물론이고, 定着生活을 한 이후로도 가족의 離散은 빈번하게 있어 온 일이었다. 가

족의 이산 가운데 ‘부모-자녀의 이산’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이산이나 실종은 자녀에게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부모 자녀의 이산’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와의 이산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면서도 물리적, 정서적 관계에서 어머니보다 먼 거리에 있다. 어머니에 비해 느슨하게 맺어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이산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주 집을 떠나야 하고, 그로 인한 이산이나 실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혼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에, 어머니의 신원은 확실한 반면에 아버지의 존재나 신원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의 이산이나 실종은 아버지를 찾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血統과 家門을 중시하던 전통 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는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존재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중대한 결함이었다. 孝를 百行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사회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효의 실천으로 여겨졌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눈물겨운 사연은 설화로 이야기되고 다양한 문학의 소재가 되었다. 고대신화에서부터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아버지 찾는 이야기’, 즉 ‘尋父談’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¹⁾를 바탕으로 ‘심부담’의 설화적 연원을 추론해 보고, 이것이 설화와 소설에서 어떤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종연, 「韓國文學의 한 原型에 대한 考察」, 『語文學』1, 國民大, 1981 pp.35-51)과 장덕순 「아버지를 찾아서(尋父譚考)」, 『東泉趙健相先生 古稀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6, pp.757-762)에서 소재론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 尋父談의 神話的 淵源과 生成 背景

1) 아버지의 存在와 役割

‘아버지’는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존재이다. 그는 자녀의 出生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며, 家長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는 教師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삶에 영향력있는 조언자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身分이나 지위를 世襲하여 자녀의 직업이나 신분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상과 역할은 시대와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 성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인류문명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母系社會에서 아버지의 존재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母系社會의 풍습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에 미치지 못한다. 조선시대의 풍습에서도 무당, 노비, 기생 등의 특수 계층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들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었다. 家父長制가 확립되기 전 流浪時代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머니의 몫이었으며, 아버지의 존재는 불확실하고 그 위상이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母系社會에서 수렵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 보호와 생계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가정과 사회는 아버지 중심으로 再編되었다. 아버지 중심의 父系社會가 정착되고 강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政治와 宗教였다. 君主制國家의 君主와 唯一神敎의 神은 강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합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정은 작은 국가였고 최소의 종교공동체였다. 여

기서 아버지는 가정을 통솔하는 家君이었고, 각종 祭祀를 주관하는 司祭였다. 산업화 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지난날의 권위와 역할은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絶對者의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保護者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인생관, 가치관을 실현시켜 주는 교사,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이다. 이들 구성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시도한다. 再婚을 통해서 父母 가운데 한 쪽을 보충하고, 入養을 통해서 자녀의 자리를 채워넣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 구성원이 이산되거나 실종되면 찾으려 애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아버지일 경우에는 그러하다.

2) 아버지의 失蹤과 探索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찾기(尋父)’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事件’이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과,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를 알고는 있으나 이산이나 실종으로 사라진 경우도 있다. 실종이나 이산의 시기가 출생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출생 이후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출생 이전의 이산이나 실종은 아버지의 존재와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출생 이후의 이산이나 실종은 아버지의 행방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에 있어 이 두 경우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身元은 분명하여 疑惑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잃거나 찾아나설 까닭이 없다. 혼인을 통하지 않고 낳은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신원이 疑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확인하거나 탐색하는 작업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다. 아버지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실질적 아버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설화나 소설은 이러한 특수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고대설화나 역사 기록은 아버지 찾기의 양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준다. 檀君神話에서 단군은 하늘의 神인 桓雄의 아들이었다. 단군이 태어난 것은 환웅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웅녀의 뜻이었다. 꿈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고, 환웅이 지시한 대로 쭉과 마늘을 먹으며 금기하여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아기 갖기를 소망했다. 남편이 없음을 딱하게 여긴 환웅이 임시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웅녀를 가까이 하여 단군을 낳도록 한다. 환웅은 임시로 남편노릇을 한 것이지 웅녀의 정해진 남편은 아니었다. 환웅은 아기를 낳게 하고는 자취를 감추는데, 아마도 다시 하늘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기를 길러 단군을 통치자로 만든 것은 웅녀였다. 단군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이산되었지만 아버지를 찾으려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군신화의 아버지像은 주몽신화에서 재현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주몽의 아버지 解慕漱도 하늘에서 내려와 柳花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서둘러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었고 아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해모수가 달아난 뒤 갇은 역경 속에서 아기를 낳고 기른 것은 유화였다. 주몽은 아버지가 하늘의 神 해모수인

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화도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으라고 일러 주지 않았다.

北方系 神話의 아버지像은 南方系 神話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혁거세, 알지, 首露 등은 하늘에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脫解는 주몽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²⁾ 버림받은 탈해가 상자에 담겨 신라로 왔을 때, 그를 건져 올려 보살펴 준 사람은 아진의선이란 여성이었다. 탈해는 그녀의 보살핌 속에 자라서 신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 탈해에게 아버지는 단지 낳아 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아버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역할은 자식을 낳게 하는 데서 그친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태어나고 자란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³⁾ 그것을 바탕으로 위업을 달성하지만 아버지를 찾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삼국유사』에서 一然은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점을 시조신화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일연은 중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합리화한다.

帝王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符命을 얻고 圖籙을 받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 무지개가 神母의 몸을 두르더니 伏羲

2) 時我父王含達婆 聘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胤 禱祀求息 七年後產一大卵. 於是大王會問群臣 人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 乃造櫃置我 并七寶奴婢載於缸中 浮海而祝曰 任到有緣之地 立國成家.(삼국유사 卷2 奇異, 脫解王)

3) 주몽이 망명할 때 강물을 향해 “나는 天帝의 孫子요 河伯의 外孫이다.” 라고 한 것은 그가 해모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를 낳고, 용이 女登에게 교접하더니 炎帝를 낳았다. 皇娥가 窮桑이라는 들
 판에서 노는데 자칭 白帝의 아들이라고 하는 神童이 와서 황아와 교접하여
 少昊를 낳았다. 簡狄은 알 하나를 삼키더니 契를 낳고 姜嫄은 한 巨人的
 발자취를 밟고서 充를 낳았다. … 沛公의 어머니는 龍과 큰 연못에서 교접
 해 褒公을 낳았다. 이 뒤로도 이런 일이 많지만 여기에선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三國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
 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⁴⁾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출생 이
 전에 아버지의 이산이나 실종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건국의 시조들은 아
 버지의 신원을 神的 存在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신격화하는 동
 시에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신화시대를 지나 역사시대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주몽신화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몽은 단군과 달리 아버지의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 같다. 유
 화는 집에서 추방당한 뒤에 금와를 남편으로 맞아 함께 살면서 주몽을 낳
 고 길렀다. 유화 혼자서는 주몽을 기르고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몽은 繼父格인 金蛙에게서 핏박을 받으면서 자란다. 주몽의
 아버지 역할을 맡아 주몽의 출생을 지켜보고 그를 양육한 金蛙는 신화시
 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아버지像이다. 그는 神의 아들로
 태어난 주몽을 맡아서 기른 양아버지로서 신의 뜻을 인간에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 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 虹繞神母而誕羲 龍感女登而
 生炎 皇娥遊窮桑之野 有神童自稱白帝子 交通而生小昊 簡狄吞卵而生契 姜嫄履
 跡而生棄 … 龍交大澤而生沛公 自此而降 豈可殫記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
 異 何足怪哉(일연, 『三國遺事』 卷二, 奇異)

주몽은 신화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역사시대를 열어 준 인물이다. 하늘의 神과 바다의 神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은 인간 세계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 그는 민간의 여자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그에게 나라를 물려준다. 그의 아들은 어려서 헤어졌던 아버지를 찾아 왕위를 물려받고, 그 자리는 대를 이어 계승된다. 주몽에 의해서 家父長制 傳統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王室에서 가정으로 轉移・擴散되면서 역사시대의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는다.

고구려의 가부장제 정착 모형은 가야와 신라에서도 볼 수 있다. 혁거세와 金首露는 주몽과 마찬가지로 神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혁거세는 알영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왕이 되었으며, 그의 자리는 맏아들에게 상속된다. 김수로 역시 신의 아들이로서 지상에 내려와 허황옥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그 나라를 장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였다.

신화시대를 지나 역사시대에 이르러 가부장제가 확립된 후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아버지의 존재와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몽, 혁거세, 탈해, 김수로 같은 신화의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위업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아들 세대는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들은 王統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잃어버린 아버지의 존재를 찾는 작업을 벌여야 했다.

3. 尋父談의 설화적 수용과 전개

1) 琉璃說話의 ‘아버지 찾아 가기’

주몽신화는 주몽의 탄생과 건국, 승천에 얽힌 이야기이다. 주몽신화의

후반부에 있는 그의 아들 유리에 관한 이야기는 주몽신화의 한 부분이면서 그와는 별개의 독립된 이야기이다. 주몽의 이야기가 신화라면 유리의 이야기는 설화이다.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주몽설화의 핵심 인물인 주몽은 신화적 인물이고, 그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유리는 역사적 인물이다.

‘주몽-유리의 이야기’는 신화이고 설화이며 歷史이다. 주몽은 天帝의 아들이며 河伯의 외손이고, 동시에 고구려의 창업주이며 高氏의 시조이다. 유리는 주몽의 아들로써 고구려 왕위를 계승한 후계자이다. 주몽의 이야기에 아들 유리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주몽신화는 建國神話와 始祖神話의 성격을 겸하게 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주몽의 통치가 끝나고 후계자를 정할 때, 아들 유리가 어머니 禮氏와 함께 부여로부터 찾아왔다. 그 해에 주몽은 유리를 太子로 세워 놓고 세상을 떠난다.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내력은 尋父談의 오래된 原型을 보여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 장가들어 태기가 있었다. 그녀는 주몽이 떠난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유리였다. 유리가 어렸을 때 거리에 나가 놀면서 참새를 쫓다가 물건는 부인의 물동이를 잘못 쏘아 깨뜨렸다. 그 부인이 꾸짖기를, “이 아이는 애비가 없어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였다. 유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어서 나라에서 용납하지 않았기에, 남쪽 지방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아버지가 떠날 때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칠각형의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시오. 만일 이것을 찾아내면 나의 아들일 것이오.’ 라고 말했다.” 유리가 이 말을 듣고 … 기둥 밑을 뒤져서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줄본으로 가서, 부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

쳤다. 왕이 자기가 가졌던 부러진 칼 조각을 꺼내어 맞추어 보니, 하나의 칼로 이어졌다. 왕이 기뻐하여 그를 태자로 삼았다.⁵⁾

유리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缺損이었다. 장난을 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웃집 여인은 그것을 ‘아비 없는’ 탓으로 돌려 나무랐다.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이 고생스럽기는 주몽에게나 유리에게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주몽은 아버지를 찾는 대신에 스스로 새로운 땅을 찾아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러나 유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三國史記』에 수록된 주몽설화는 이규보의 『東明王篇』, 이승휴의 『帝王韻紀』, 일연의 『三國遺事』 등에 수용되고 재창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소재로 한 수많은 漢詩들이 조선후기에까지 이어져 나왔다. 유리의 심부담은 조선후기 여러 시인들에게 효행의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익과 이복휴는 유리설화의 내용을 소개한 뒤, <일곱 모 돌(七稜石)>이란 제목의 한시를 남겼으며, 이학규 역시 그 내용과 함께 <일곱 그루 소나무(七嶺松)>란 제목의 악부시를 남겼다.⁶⁾

5) 朱蒙在扶餘 娶禮氏女有娠. 朱蒙歸後乃生 是爲類利. 幼年 出遊陌上, 彈雀誤破 汲水婦人瓦器. 婦人罵曰 此兒無父 故頑如此. 類利慙 歸問母氏 我父何人 今在何處. 母曰 汝父非常人也 不見容於國 逃歸南地 開國稱王. 歸時謂予曰 汝若生男子 則言我有遺物 藏在七稜石上松下 若能得此者 乃吾子也. 類利聞之 … 乃搜於柱下 得斷劍一段 … 行至卒本 見父王 以斷劍奉之. 王出己所有斷劍 合之 連爲一劍 王悅之 立爲太子.(『三國史記』 卷十三 高句麗本紀第一 始祖東明聖王·琉璃王)

6) 이혜순·남은경, 『천손은 어느 곳에서 노닐고 계시는고 : 한시 속의 고구려』, 소명출판, 2009. pp. 25-131 참조.

2) 漢文短篇의 ‘아버지 身元 確認’

한문단편에는 이산되거나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身元을 확인하고 마침내 再會하는 내용의 작품이 『靑邱野談』을 비롯하여 『記聞叢話』, 『東稗洛誦』, 『靑野談藪』 등에 여러 편 실려 있다.

<聽驟雨藥商得子>는 경상도 聞慶의 한 소년이 자신을 낳게 해 놓고 사라진 아버지를 오랜 고생 끝에 찾게 된 이야기이다.

4월 어느 날 영조 임금의 거동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쬐는 소나기를 피해 정동의 藥房으로 몰려들었다. 한참 동안 비가 그치지 않자, 그곳에 머물고 있던 약주름이 소나기에 얹힌 지난 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20년 전 약주름은 귀한 약재를 구하러 급히 東萊로 가던 중이었다. 문경 새재를 넘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마침 길가에 있던 원두막을 발견하고 비를 피하려 갔다가 거기 있던 처녀와 인연을 맺는다. 비가 그치고 약주름은 처녀를 버려두고 떠났는데, 소나기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밖에서 듣고 있던 소년이 들어와서 약주름을 보고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고 인사를 드렸다.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아울러 신체상의 특징을 통해서 약주름이 자기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부자상봉의 기쁨을 나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한 말년을 보낸다.⁷⁾

<過東郊白衲認父>는 내용과 수사기법이 <聽驟雨藥商得子>와 유사하다. 서울 동대문 밖에 사는 砲手의 아들이 자기를 낳아 준 실질적 아버지를 찾게 된 내력을 밝힌 이야기이다.

7) 李佑成 편, 『靑邱野談』, 『靑碧外史海外蒐佚本』, 28-29, 亞細亞文化社, 1985. 卷三, <聽驟雨藥商得子>

서울 근교의 한 선비가 점쟁이에게 자신의 평생 신수를 점쳤더니 ‘해저문 동산에 山僧이 뒤를 따른다.(日暮東門 山僧隨後)’라는 占卦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선비가 동대문 밖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소나기를 만난다. 비를 피하러 들어간 길가 집에서 마침 혼자 집을 지키던 도잠 포수의 아내와 하룻밤을 지낸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손톱을 깎다가 다쳐서 여자가 주는 버선짝으로 피를 닦고 그 버선짝을 추녀에 꽂아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십오 년이 지났을 때 선비는 벗들과 다시 동대문 밖으로 나들이를 간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날 비를 피했던 집을 지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재미삼아 이야기한다. 마침 그 뒤를 따라 오던 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나아가 선비를 인도하여 집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선비는 옛날 인연을 맺었던 포수의 아내를 다시 만나고, 그 중이 자기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된 내력은 이러하다.

선비가 하룻밤을 묵고 간 후에 胎氣가 있어 아들은 낳았다. 여자는 그 아이가 선비의 아들인 줄 알았으나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포수의 아들인 줄 알고 자랐다. 열 살이 되었을 때 어미가 아들의 머리를 빗기다가 이마를 만지면서 혼잣말로 ‘양반의 물이 상놈과 다르다.’고 하였더니, 아들이 그 곡절을 캐묻는 바람에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아들은 天倫을 어길 수 없다 하며 굳이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섰다. 머리를 깎고 오륙 년 동안 서울 주변을 돌며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선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들은 다시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여 선비와 함께 부자의 정을 나누면서 살았다.⁸⁾

『동패낙송』과 『청야담수』 등에 실려 있는 <徐孤靑巖穴牘書逢其父>는 조선 선조 때의 실존 인물 徐起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이다.

8) 李佑成 편, 『靑邱野談』, 卷三, <過東郊白衲認父>

서고청은 공주 사람으로 宰相 沈悅의 私奴였다.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 여종이었다. 나이 열여섯에 면화를 따러 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를 만났다. 비를 피하러 길 옆 동굴로 들어갔다가 낯선 남자에게 겁간을 당했다. 그 뒤에 아이를 가져 고청을 낳고는 혼자 수절하고 지냈다.

고청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사연을 듣고 날마다 동굴로 찾아가 글을 읽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비를 피해 동굴로 들어와 고청과 만나게 되었다. 사내는 비를 보면서 크게 웃으면서 지난 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내용과 같았다. 고청은 자기가 아들임을 밝히고 사내를 집으로 모셔다 함께 살면서 지성으로 봉양했다.⁹⁾

위의 세 이야기는 구체적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婚外關係로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줄거리와 세부적 묘사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소나기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인연을 맺고, 한번의 관계로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찾는다는 점이 서로 같다. 다만 <過東郊白衲認父>에서는 점쟁이의 점괘를 끌어들여 혼외 생자를 운명으로 설명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위의 두 이야기가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내용인데 반해 <傳書封千里 訪父親>은 딸이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이다.

충청도 大興 斗蓮里에 사는 선비 차덕봉은 同鄉 文官의 衙客이 되어 함경도 북청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官妓 楚岸과 인연을 맺어 胎氣가 있었다. 동향 文官이 파직되는 바람에 덕봉은 기생이 출산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9) 『東稗洛誦』, <徐孤青巖穴牘書逢其父>. 『청야담수』에도 이 이야기가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덕봉은 초안과 이별할 때 부채를 주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大興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斗蓮이라 하라고 일러 주었다. 초안은 딸을 낳아 이름을 두련이라 하였다. 덕봉은 기생이 딸을 낳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 때 두련의 편지와 補藥이 전달되었다.

두련의 편지에는 생전에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다. 덕봉은 그제야 딸이 태어난 줄을 알고 답장을 보냈다. 딸이 보내준 보약을 먹고 병을 고친 덕봉은 멀리서 찾아온 딸을 만나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 뒤로 두련은 자주 왕래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년상까지 마치고 돌아갔다.¹⁰⁾

두련은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를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기생은 隨母法에 따라 그 딸도 기생이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안다고 해도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데도 굳이 아버지를 찾아 귀한 약재를 보내고 먼 길을 찾아 부녀의 정을 나누었다. 부모를 확인하고 찾아보는 것이 단지 세속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정과 천륜을 따르는 일임을 보여준다.

『溪西野談』에는 이와 조금 다른 내용의 심부담이 실려 있다.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하여 유복자로 낳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원을 밝혀 아들로 인정받게 해 준 이야기이다.

시골 양반집 총각이 이웃 마을로 장가를 들었는데 겨우 초례를 치르고 첫 날밤을 보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총각은 급히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다. 지관과 함께 뭇자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처갓집 뒷산에 뭇자리를 잡게 되었다. 총각은 잠시 처갓집에 들었다가 장모의 권고로 신부를 잠시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 관계를 맺고

10) 李佑成 편, 『靑邱野談』, 卷十一, <傳書封千里訪父親>

집으로 돌아왔다.

총각이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여 하관을 하려 할 즈음에 신부가 장지로 찾아왔다. 신부는 신주 앞에 곡을 하고, 총각에게 자기와 동침한 사실을 手記로 써 달라고 요구했다. 총각은 창피스럽다 하여 내치려 했으나 신부는 듣지 않고 끝내 수기를 받아 갔다. 장례에 참석했던 친족들은 부친의 상중에 아내와 동침한 총각을 꾸짖으며 욕을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총각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부는 그 뒤로 배가 불리와 달을 채우고 아들을 낳았다. 친척들과 이웃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 하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신부는 남편에게서 받은 수기를 보여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의 아들임을 확인받았다. 그 유복자는 뒷날 과거에 합격하여 현달 했다고 한다.¹¹⁾

新婦는 남편이 喪中에는 夫婦關係를 할 수 없다는 禁忌를 깨고 자기와 관계를 가진 일을 두고 혼자 고민을 했다. 혹시 아이라도 갖게 되면 아버지에게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이다.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 양반의 아들이 喪中에 관계를 가졌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마당에 두 사람의 동침 사실을 公認받아 두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륜의 씨앗으로 몰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젊은 신부는 창피를 무릅쓰고 장지로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同寢 사실을 확인하는 手記를 받아 간 것이다. 뒷날 신부의 예상대로 남편이 죽고 유복자를 낳았을 때 미리 받아 둔 수기로 인하여 아이는 아버지에게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여 공개적으로 수기를 받아 둔 신부의 총명함을 사람들이 탄복했다 한다. 이 이야기는 심부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어머니의 機智로 자칫하면 잃어버릴 뻔한 아버지를 찾아주었

11) 李義平, 『溪西野談』 卷四, <一士人>.

다는 점에서 심부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문단편에 나타난 심부담은 주몽신화·유리설화의 기본 구조를 수용하면서 시대적 배경에 맞게 변용된 모습을 보인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모습과 역할이 주몽신화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아버지는 잠시의 외도를 통해서, 또는 공식적 혼인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한다. 그런 다음 헤어지거나 세상을 떠난다. 이들의 모습에서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 유리의 아버지 주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설화 속의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머니가 준 信物이나 징표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아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4. 尋父談의 소설적 수용과 변이

1) 한문소설의 수용과 변용

심부담은 單元說話로서 흥미롭고 인상적인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소설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소설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심부담이 소설에 수용될 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고, 본래의 구조가 해체되거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부담의 한 부분이 소설 구조 속에 삽입되기도 하고, 심부담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분산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崔孤雲傳〉은 심부담의 도입 부분을 첫머리에 수용한 작품이다. 최치원의 아버지 최충은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아내를 금돼지라는 괴물에게 납치당한다. 그는 미리 대비해 둔 덕분에 곧바로 금돼지를 찾아내어 죽이고 아내를 찾아온다. 그러나 아내가 낳은 아들 최치원을 자기 아들이 아

니라고 하여 내다버렸다. 내다버린 아들이 범상하지 않은 아이임을 알고 다시 데려오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최치원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잃게 되지만 아버지를 찾지 않고 스스로 학업을 닦아 세상에 드문 인재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심부담의 발단이 되는 父子離散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탐색과 상봉, 再會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앞부분만이 작품에 수용되어 있다.

조위한의 <崔陟傳>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가족의 이산과 재합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여러 형태의 父子·父女 離散과 探索 이야기가 얹혀 있다. 작품 서두에 최척과 만아들 몽석의 父子離散, 최척의 아내 옥영과 어머니의 母女離散이 나온다. 이 와중에 최척과 부인 옥영은 중국과 일본으로 갈라져 이산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서 만난 최척과 옥영은 다시 아들을 낳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으나, 최척의 징병 출전으로 다시 헤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척과 둘째 아들 몽선과의 부자이산이 따른다.

몽선은 자라서 중국 처녀 진소저와 혼인을 하는데, 진소저 역시 아버지와 이산한 상태에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징병되어 갔다가 소식이 끊어져 있었다. 옥영과 아들 몽선 내외는 징병으로 끌려가 生死를 알지 못하는 최척을 찾아 조선으로 돌아온다. 옥영과 몽선 그리고 몽선의 아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 데는 각기 다른 목적이 하나씩 더 있었다. 옥영은 잃어버린 친정어머니를 만나려 했고, 몽선의 아내는 전란 통에 실종된 자기 아버지를 만나려 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들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최척은 아버지를 만났고, 옥영은 어머니를 만났다. 몽석과 몽선은 부모와 조부 및 외조모를 다시 만났으며, 몽선의 아내 진씨는 아버지를 만났다. <최척전>에서는 ‘실종-탐색-재합’으로 이어지는 심부담의 구조가 서로 겹치면서 복잡하게 얹혀 있다.

金琦의 <丁生傳>은 부자이산과 재합의 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丁生은 봄놀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中人 집 처녀와 인연을 맺는다. 그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정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처녀를 버려두고 시골로 내려간다. 부모의 꾸중을 두려워한 처녀는 아들을 낳아 유모에게 맡기고 자살하고 만다. 정생은 그 사이에 양반집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두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뒷날 정생은 유모가 데리고 온 아들을 만났으나 가정에 화를 불러올까 두려워 아들을 버려두고 돌아온다. 그 뒤로 집안이 기울고 병까지 얻은 정생은 속리사로 수양을 갔다가 거기서 자기를 찾아온 아들을 만난다. 중이 되어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현몽으로 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지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하여 병을 고쳐 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

<鄭生奇遇記>는 심부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수용한 작품이다. 아들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이야기이다. 서울의 선비 鄭生은 이웃 동네에 사는 이씨 처녀와 혼인을 했다. 혼례식을 치른지 며칠 뒤에 병자호란을 당하여 정생은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간다. 전쟁이 끝나고 정생은 청나라에 머물러 살면서 벼슬을 하여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다. 그 사이에 부인 이씨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감사에 올랐다. 그 때 60세가 된 정생은 청나라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고향에는 가족이 살지 않았다. 이웃 사람에게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찾아갔으나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 이씨는 정생을 불러 신혼 때에 주고받은 이야기와 호롱불에 婚書紙를 태웠던 사연을 물어 남편임을 확인하고 아들로 하여금 부자상봉을 이루게 한다.¹²⁾

12) 『東稗洛誦』에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세부적 내용은 약간 다르다.

이 작품에는 심부담의 주요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 남편은 혼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지면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내는 이들을 낳고 길러서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한다. 남편이 이들을 찾아 와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아 자신이 아버지임을 확인받고 함께 행복한 말년을 보낸다. 이야기의 구성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2) 국문소설의 수용과 變容

人生事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소설의 세계에서 家族의 離散과 再合은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神話的 傳記類型의 전통을 잇는 國文英雄小說의 경우 예외없이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의 出生談이다. 출생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는 ‘棄兒’ 話素이다. 존귀한 가문에서 비범한 자녀로 태어나는 주인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 버려진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다시 만나 화합을 이룬다. 여기에는 심부담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九雲夢>에서 성진이 연화도량을 떠나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처사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늘 사람이 謫降하였다.’고 기뻐했으나 소유의 나이 10세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난다. 소유는 아버지가 ‘天上으로 가신 것’이라 믿고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주몽이 자기 아버지가 해모수인 줄을 알고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실제로 양처사는 작품 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최고운전>과 마찬가지로 심부담의 첫 부분을 작품의 첫머리에 수용하고 있다.

주인공의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고 시대적 배경이 임진왜란으로 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 일본으로 되어 있다.

<유충렬전>에서 충렬은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유심이 간신 정한담의 전횡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면서 아버지와 이별한다. 충렬의 일생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우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함께 행복을 누린다.

<이대봉전>에서는 대봉과 그의 아내인 애봉이 동시에 아버지를 잃는다. 대봉은 태어난 지 오래지 않아 아버지 이익과 이별한다. 이익은 간신 왕희의 전횡을 직간하다가 남해 절도로 귀양을 간다. 대봉은 山寺에서 道術을 배워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유배되어 있던 絶島에 표류하여 부자상봉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대봉의 아내 애봉은 男裝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웅소설과는 달리,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는 심부담이 작품 속에 수용된다. <최척전>에서 최척의 며느리 진소저가 출정한 아버지를 찾아 조선으로 나오는 데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숙향전>에서 숙향은 부녀이별과 재합의 과정을 겪는다. 숙향은 김전 내외가 오랜 無子 끝에 기도하여 얻은 딸이다. 숙향은 태어난 지 삼년 만에 병란이 일어나 부모와 헤어진다. 숙향은 갓은 고난 끝에 천생배필을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 행복한 말년을 보낸다. 작품의 구조는 <유충렬전>, <이대봉전> 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인공을 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부담의 또 다른 변용을 볼 수 있다.

심부담의 원형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홍길동전>과 <심청전>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길동은 홍판서의 精氣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낮은 신분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호안서는 자신이 낳은 길동에 대해 아버지임을 부인한 것이다. 길동은 可視

的 거리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를 잃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呼父呼兄’의 禁止는 부자관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동의 끈질긴 ‘呼父呼兄’ 요청은 부자관계의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한 것이다. 실질적 부자관계에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실종이나 다름없다.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한 길동의 호소는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歷程이었다.

홍판서가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과 법률 때문임을 깨닫고 길동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집을 떠난다. 갖가지 노력 끝에 嫡庶差別로 인해 막혀 있던 官吏任用의 길을 터놓자 부자상봉의 길이 열린다. 홍판서는 죽기 전에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길동의 死生을 알지 못하니 유한이라. 제가 살아 있으면 찾아올 것이니 적서를 분변치 말고 제 어미를 대접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 유언에 따라 길동은 嫡母와 嫡兄으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고, 홍판서의 墓地를 정하는 중대한 일을 맡는다. 그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홍판서 내외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혈연적 정통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서 길동은 실종상태에 있던 아버지를 찾아 가족과 화합을 이루고, 울도국왕으로서의 위상도 인정받게 된다.

<심청전>은 심청이 몸을 팔아 심봉사를 이별하게 되면서 부녀가 離散한다. 심봉사는 딸이 祭需로 희생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딸을 찾지 않는다. 선인들의 祭需로 물에 빠졌던 심청은 다시 살어나 왕후가 되었으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가산을 탕진하고 流離乞食하는 심봉사의 소제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의 이산이 아버지의 실종으로 이어지자 심청은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아버지 찾기를 시도한다. 천하에 반포된 맹인잔치를 통해서 심청은 아버지를 찾고 끊어졌던 부녀관계를 회복한다.

5. 尋父談의 文學적 수용과 그 意義

‘만남과 이별’, ‘이별과 再會’은 인간사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며, 문학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이다. ‘만남-이별-재합’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고, 그것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도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고소설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운명적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합의 과정을 그린 奇逢類 소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심부담>은 기봉류 소설과 마찬가지로 가족간의 특수한 이산과 재합을 다룬 이야기이다.

‘아버지 찾기’의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한 尋父談은 오랜 연원과 서사적 맥락을 가진다. 신화에서 출발하는 심부담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설화와 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부담을 중심 소재로 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작품의 삽입요소로 수용하여 소설적 흥미를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소설, 군담소설, 기봉소설 등에는 심부담의 화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어 있다. 흔히 사회소설로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나 전형적 윤리소설로 규정되는 <심청전> 같은 작품에도 심부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심부담은 남녀간의 극적 만남과 이별, 아버지를 찾는 자식의 간절한 소망, 우연이면서도 결코 우연이 아닌 부자상봉 등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흥미를 고조시킨다. 뿐만 아니라 심부담에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윤리적 교훈, 당대 사회적 관습과 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공고화된 조선사회에서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와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찾는 일은 君王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벼슬에 나가며 家業을 이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찾기’는 개인적 행복의 바탕이 되고,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었으며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君·父를 같은 반열에 두고 忠·孝를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였던 전통 사회에서 심부담은 孝를 실천하는 숭고한 행위로 칭송되었다. 이념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찾기’는 흥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說話, 詩, 小說의 소재로 취택되었다. 아버지의 ‘실종-탐색-재회’로 이어지는 심부담의 소재적 맥락은 고전문학을 거쳐 현대문학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어 왔다. 유리의 심부담을 소재로 한 이광수의 <사랑의 東明王>이나 심부담을 새롭게 해석하여 작품에 수용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한승원의 <물보라> 등이 그 예이다.

가족의 離散과 再會은 한국서사문학사를 관통하는 主題史的 脈絡을 이루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문학과의 비교 연구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심부담>의 범주를 부자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父女, 母子, 母女의 관계에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면 한국문학의 本質과 特性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혜순·남은경, 『天孫은 어느 곳에서 노닐고 계시는고-漢詩 속의 高句麗』, 소명, 2009
- 이우성·임형택, 『李朝漢文短篇集』 中, 일조각, 1973.
- 장덕순, 『아버지를 찾아서(尋父譚考)』, 『東泉趙健相先生 古稀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6.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주종연, 『韓國文學의 한 原型에 대한 考察』, 『語文學』1, 國民大, 1981.

ABSTRACT

The Origin of *Tales of Searching for a Father* and their Literary Embodiment

Jung, Ha-young

The *Tales of Searching for a Father* is about a story of finding a lost father due to a family breakup or his disappearance. In a patrilineal society, a father figure, as the leader of a family,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his children. Considering that the absence of a father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his children's survival and social lives, it seems natural that the motif of finding a father is important in Korean literature. The motif has been adopted in poetry, folktales, and fiction works because it can attract people's attention, stimulate emotional responses, and provide moral teachings.

The embodiment of the motif in literature can be found in the myth of Chumong, folktales, premodern fiction works, and contemporary fiction works. For example, the motif is not only included in *The Tale of Ch'oe Ch'ok* which deals mainly with the Ch'oe family's separation and reunion, but also in the *Tale of Yu Ch'ungryol* and *Tale of Hong Kiltong*. We can expect that those stories can bring a new perspective on interpreting Korean literature if they are examined through the lens of the motif of finding a father. It is adopted throughout and becomes an important theme in Korean literature. Thus, tales containing the motif are worth examining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literature and, furthermore, world literature as well.

Key Words The Tale of Searching for a Father, Patrilineal system, Matrilineal society, Family breakup, Disappearance, Separation and Reunion of son and father, Myth of Chumong, Saga of King Tongmyong, Context of theme.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